

이승헌 한국환경농학회 회장

“갈등 없는 신구의 조화로 학회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사)한국환경농학회의 신임 회장을 맡은 이승헌 회장을 만났다.

올해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한국환경농학회에서 약 30년간 활동해 온 이승헌 회장은 학회 역사의 산증인이자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으로 현장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정부 사업을 운영하는 환경전문가다.

이승헌 회장은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면서 “신구의 조화를 통해 좋은 점은 계승하고 문제점은 해결할 때 학회가 발전할 수 있고, 농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을 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우리나라 농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이승헌 회장과 그의 대담을 살펴보자.



●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환경기술인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36대 한국환경농학회 회장 이승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회 회장은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많이 맡으시는데 저는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공기업에서 환경관리처장 직위에 있으면서 농업환경에 관련한 사업을 기획하고 현장에 실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기술’하면 주로 공단이나 도시지역과 관련 하여 하·폐수 처리, 대기오염 방지, 토양오염 정화 등을 생각하거나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 관련 행정절차에 필요한 환경기술 등을 생각할 수 있으신데, 농업과 환경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가 하는 일이나 우리 한국환경농학회의 회원분들이 종사하고 연구하는 일들이 모두 환경과 밀접합니다. 월간 환경기술인에 우리 학회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 회장님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걸어 온 길’이라고 하니 무척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걸어 온 길의 갈래는 하나인데, 오다보니 여러 가지 일을 한 듯 싶습니다. 먼저 저는 부친의 직장으로 인하여 태어나기는 부산이라는 광역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본적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이라는 지금도 아주 낯선 곳입니다. 어린 시절은 그 곳에서 보냈고 지금도 어릴 적 살던 집과 농사짓던 땅이 있고 조상님들을 모셔놓은 선산도 있습니다. 제가 집안 장손이라 자주는 못 찾아 뵙지만 찾아가고 지켜야 할 곳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에 진학하여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토양을 평생 공부하고자 석사과정에 진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학했습니다. 석사를 마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부설 연구기관인 농어촌연구원에서 직장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농업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한갈래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을 반복하는 일을 무지 싫어하는 성격이라 회사 생활을 할 때도 토양뿐만 아니라 수질이나 생태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환경 매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관련된 학회에 가입하여 학문적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대충 꼽아도 10개 이상의 학회에 종신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농학회는 석사 때 학생회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30년 다 되어 가는 활동을 하고 있고, 오랜 활동으로 회장직도 맡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성장포럼 특강(2018.10.17)



▲2023년도 정기학술 대회(2023.07.06)

직장에서는 중견 간부가 되면서 주로 본사 기획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소에서는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하고, 본사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국가 정책을 지원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농어촌 현장에 접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본사와 연구원만 오간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작년까지는 연구원에서 연구기획실장직을 수행하면서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금년 1월부터 다시 본사로 와서 농업환경과 관련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받고 정책개발과 사업 집행도 하다 보니 경험이 축적되어 기술사도 2종목이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의 기술자이지만 환경 분야의 토양환경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부터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강의 요청이 들어와 15년 정도 시간 강사, 겸임교수로 강단에서 후학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가 위원회 활동도 욕을 먹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분야로는 농업환경과 관련된 한 갈래의 일이라 저 개인에게는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농학회는 900여 명의 국내외 정회원으로 구성된 학술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및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농학회는 1981년 창립 이후 한국환경농학회지를 1982년에 창간했습니다. 본 학회는 설립 초기 98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대학, 국공립연구원, 민간단체 및 기업 등 약 900명의 회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매년 7월에는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고 춘계 혹은 추계에 1회 이상의 전문 워크숍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로는 지속가능 농업환경과 관련하여 토양 및 수질, 생태환경, 자원순환 농업 구축, 농작물 보호, 농업환경화학, 환경분석화학, 환경미생물, 환경독성 등의 다양한 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농업환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회 조직은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사회에서 대학교수, 국공립 연구소, 민간 기업과 단체 등에 소속된 상임이사분들이 학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주요 업무의 실행조직인 총무, 재무, 학술, 연구, 편집, 섭외, 국제 등 일곱 가지 분야의 부회장과 간사진이 구성되어 있고, 부회장단은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 및 사립대학 교수 등이 총무, 연구, 편집, 섭외, 학술 분야의 부회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학회지를 발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편집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❶ 학회 가입조건과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일반적인 학회라는 조직이 다들 비슷한 가입조건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학회는 추천인 2인의 서명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한국환경농학회에는 온라인 시대에 작동하지 않는 형식적 절차는 없습니다. 가입 조건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으로 승인받고 회원 ID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된 회원은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포함한 각종 자료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학회지에 투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지는 KCI를 넘어 SCOPUS에 등재되어 있어 회원이 되어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❶ 소개해주신 학회지는 매년 약 4권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회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농학회지는 1982년 창간 이래 연 4회 약 60편 정도의 논문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선정된 이후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한 전문학술지(매년 95점 이상)로 평가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학회로 지정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에는 SCOPUS에 등재되어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학진등재지(KCI)란 논문이 학계에서 인정받아 권위 있는 학술지에 등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



▲한국환경농학회지
1권 1호 논문 1쪽



▲한국환경농학회지 표지

당 논문이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연구자들이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CIE, SCOPUS, KCI는 각각 논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논문 인용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자체적인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고, 논문의 질과 가치를 평가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플랫폼은 각자의 평가 체계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논문의 가치와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기관과 플랫폼에서 한국환경농학회지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년부터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E-journal 형태로 체제를 개편하여 수시 발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와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❶ 올해로 학회는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며 중년층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오랜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취임 후 상반기를 보내신 시점에서 소회를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환경농학회-농어촌연구원 2024년 춘계 전문 학술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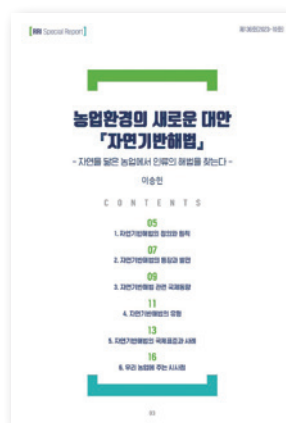
▲2024년도 춘계 전문 워크숍(2024.04.25)

학회가 44년이 되고 제가 30년 활동을 했으니 학회 역사의 2/3를 함께 했습니다. 그간의 학회가 발전만 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조직은 좋은 점은 계승하고 문제점은 해결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오는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의 좋은 전통은 원로들의 참여가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진들은 그 또한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회장 취임할 때 신구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집안의 장손이라 어릴 적부터 어른 말씀 잘 듣고 일가친척 잘 아우르며 지내야 한

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없는 신구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면 모두가 조금씩 섭섭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부회장분들, 이사님들, 감사님들은 구성할 때 가장 중점에 두고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며 춘계워크숍을 성공리에 마쳤고 7월 초에는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도 성황리에 치루었습니다.

7월 3일~5일 여수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학술 발표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요?

한국환경농학회는 정관에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7월 첫째 주에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7월 3일~5일 여수에서 학회의 2024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금년 주제는 <자연기반 해법과 환경농학>이었습니다.



▲자연기반해법 설명 기고문 표지

우리 학회는 회장을 2년 전에 미리 선출해 놓습니다. 작년 한해는 금년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한 해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농업환경의 새로운 대안 『자연기반해법』 - 자연을 닮은 농업에서 인류의 해법을 찾는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작년에 이 글을 쓰면서 금년 학회 주제로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주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스펙트럼이 넓은 우리 학회 회원들의 요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주제를 잡아야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학술대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기반해법(NbS)은 “자연적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적응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인간의 복지와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 모두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습지학회와 한국농공학회의 현직 회장님들을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부탁드렸습니다. 환경 분야의 대표학회와 농업 분야의 대표 학회장님들을 모셨던 부분에서 학제 간의 융합도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2부 행사로 공공분야 3개 세션을 기획했습니다. 우리 학회와 관련한 기관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3개 기관의 특별 세션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환경분야의 연구과 사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 도입 사례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추가적인 특별 세션으로 유기농업자재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영세한 유기농자재 업계의 현실이 있어 34대 회장님께서 우리 학회가 그 분들이 모여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금년에도 특별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여 유기농자재업 협회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현직 한국농어촌공사의 환경관리처 처장으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가장 이슈가 되는 환경산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4대 주력 사업을 우리는 간략하게 地

水人村(지수인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만들고, 그 농지에 물을 주고 농촌에 사람이 살게 하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주력 사업입니다.

저는 그 사업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환경 또는 환경농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학회에서는 학술적인 활동을, 학교에서는 후학 양성을, 회사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은 다를 지라도 그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환경과 함께 더불어 가고 융합하고 발전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농사만 안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주요하게 하고있는 일은 우리나라 농업용수 공급원인 3천 3백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조사, 관리, 개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수질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저수지는 수질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준비하여 설계하고 시공한 후에 상류 여건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하수 처리장 같은 장치형이 아닌 자연기반형 인공습지를 주요 개선공정으로 채택하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는 사업이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단계에 또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익 직불제 5조 원 공약에 맞추어 농업 환경 분야의 선택형 직불제 사업을 기획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논물 관리나 바이오차 투입으로 탄소를 덜 배출하거나 고정하게 하면 직불금을 주는 사업인데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 시범운영해 본 다음 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14일에도 이



▲탄소중립프로그램 직원 교육(2024.06.13)

사업의 정착을 위해 직원 교육을 직접 하고 왔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공들여 진행해 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인데 선택형 환경 직불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환경보전 활동과 환경개선 활동 등을 발굴하고 체계화하여 농민들의 자발적 신청과 활동 이행 이후 이행 점검 등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는 농업환경 또는 환경농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농업이 환경과 함께 더불어 가고 융합하고 발전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요소와 자연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특히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과 기후에 관한 생각들은 가끔 농업계 신문에 기고하는데 본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11일 흙의 날을 맞아 기고한 글과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고한 글이 생각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분야의 전략과 대응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발표된 국가 전략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월 칼럼에서는 “2023년 3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략 속에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종 분야에서는 논물 관리를 통해 메탄이 발생하는 논의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축산분야에서는 메탄이 적게 나오게 하는 사료를 개발해 보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축수산 분야의 감축 계획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이롭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양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은 감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업농신문

2024-06-05 09:10

[특별기고] 깨끗한 환경이 만드는 농업의 가치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한국환경농학회 회장)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자 국제사회는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7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매해 새로운 주제로 환경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환경의 날’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 파괴 등과 같은 지구촌 전반의 환경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응을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 차원의 환경 보호, 생태계 복원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Our Land, Our Future, We are Generation Restoration(우리의 땅, 우리의 미래, 우리는 회복의 세대)’이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숲을 조성하고, 물과 토양을 되살릴 수는 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회복의 당위성에 깊이

▲환경의날 전업농 신문 기고문(2024.06.05)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칼럼에서는 “환경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산업은 농업이다. 농업은 토양과 물, 기후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식량과 연료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영농이 불가능해지면 인류 역시 생존할 수 없다. 우리와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해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다시 말해 물과 토양의 오염을 최소화하며 환경 회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환경과 농업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생태계의 지배자가 아닌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고 인간이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철학이 기반된 정책과 기술이 구현되기를 희망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랜 기간 환경 분야에 몸 담아오신 환경전문가이자 환경기술인으로서 앞으로 달성하시고자 하는 개인적 목표로는 무엇이 있으실까요?

저는 경상도 강촌에서 아주 유교적인 가문에서 장손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현대의 이미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목표는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좀 다르지요. 요즘도 논어와 맹자를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과 맹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이 저의 삶의 지표입니다.

첫째는 배우고 익히고 기뻐하는 것, 둘째는 천하에 왕노릇 하는 것보다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즐거움입니다. 저도 이제 정년이 5년 정도 남았습니다. 학회에서든 회장으로 하였고 직장에서도 직원의 신분으로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저는 농업이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



▲'24년 국가물관리 위원회 1차 세미나 참석 및 토론(2024.02.01)

어야만 환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개념과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농업과 환경에 적용 가능한 개념들을 계속 공부하고 또 그 내용들을 생산자, 소비자, 연구자, 정책가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농업환경이 개선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기술인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위탁받아 환경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측정분석, 글로벌 ESG] 관련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환경기술인분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의 주제를 제안해주신다면 어떤 콘텐츠가 있을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 분야나 기관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주로 ‘농업과 환경’이라는 제목의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농업과 환경이 갈등의 영역이 아닌 조화의 영역이라는 주제입니다. 환경기술인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인분들께 ‘토양, 비료, 농약’이라는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환경’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주제이지만 막상 그 정의조차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환경기술인협회의 직무교육의 세부 주제로 한번 다루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환경기술인으로서 전국의 후임 환경기술인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라떼’와 ‘꼰대’의 단어가 늘 머릿속에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후임 환경기술인들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려면 ‘나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여 꼰대 소리를 듣고 끝날 것인데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냥 살아온 경험상 후회하지 않았던 행동은 첫째, 항상 새로운 학문과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책읽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책이 아니더라도 항상 새로운 학문과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기술사 자격취득이나 박사학위 취득에 도전하십시오.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월간 「환경기술인」에 이렇게 표지모델로, 많은 지면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힘들 때 오늘 한 이야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두고두고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헌

한국환경농학회 회장

주요 학력

- 2006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박사
- 1997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석사
- 1995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학사
농화학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주요 경력

- '24. 3 ~ 현재 중앙건설기술심의회 설계심의위원
- '24. 1 ~ 현재 한국환경농학회 회장
- '24. 1 ~ 현재 한국농공학회 이사
- '24. 1 ~ 현재 한국관개배수위원회 기후 및 환경분과위원장
- '23. 1 ~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
- '17. 3 ~ 현재 한국기후변화학회 편집위원
- '15. 1 ~ 현재 한국토양비료학회 수석부회장
- '12. 1 ~ 현재 전남대 지역바이오시스템공과 겸임교수
- '96. 12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

주요 포상

- '00. 12. 30 환경보전유공 환경부장관 표창
- '04. 05. 14 우수논문상 한국토양비료학회
- '04. 07. 02 우수논문발표상 한국환경농학회
- '14. 12. 03. 소비자권익증진 유공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 표창
- '20. 03. 11 토양환경보전유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